

| 가정폭력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가정폭력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목록

앤서니 랜대조 주교님의 메세지	3
가정폭력이란?	4
가정폭력의 종류	4
가정폭력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6
i. 성경은 가정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7
ii. 결혼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복지를 위함이다.....	7
iii. 폭력의 악순환에서 진정한 화해의 순환으로	8-9
가톨릭 공동체의 입장.....	10-11
주요 전화번호	12

첨부 자료

1. 폭력에 처했을 수 있는 여성을 위한 안내
2. 폭력의 희생자인 남성을 위한 안내
3. 학대를 받고있는 사람을 위한 안내
4.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안내
5. 주요 전화번호
6. 회복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웹사이트 정보
7. 가정폭력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8. 가정폭력 카드

본당 게시판을 위한 자료

1. 가정폭력을 끝내기위한 기도문
2. 가정폭력에 대한 지식 A-Z
3. 간추린 사실 -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영향

글쓴이 - 크리스티나 고메즈 박사 Dr. Cristina Gomes

비평 - 피나 버나드 Pina Bernard

앤서니 랜대조 주교님의 메시지



관계는 중요합니다. 관계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우리는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은사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가져다 주는 이 위대한 선물을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가 번창할 수록 우리는 더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관계가 분열될 수록 우리는 더욱 고립되고, 참된 자아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시며, 사랑의 관계로 융합된 세 위격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이렇게 경이롭고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심은 쉽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킵니다. 최악의 경우, 지배와 복종의 세력이 다른 사람을 군림할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와 학대받는 사람 모두의 정체성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의 고통스러운 예가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성적, 심리적 그리고 영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학대나 훼손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이 반영되고 양육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폭력 앞에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모든 행동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유익한 관계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전 그리고 화해의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정 폭력의 슬픈 현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둘째로 가정폭력의 폭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정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요인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 더 나은 교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정의와 치유와 평화를 위한 이 중요한 사업에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Sincerely yours in Christ,

Most Rev Anthony Randazzo DD, JCL
Bishop of Broken Bay

개요

가족은 안전과 양육 그리고 개인과 관계가 변명하는 기본적인 경험이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폭력은 특별히 파괴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법과는 절대적으로 상반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한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희망의 장이고, 삶과 부활의 장입니다. 가족 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2015년 필라델피아 세계가정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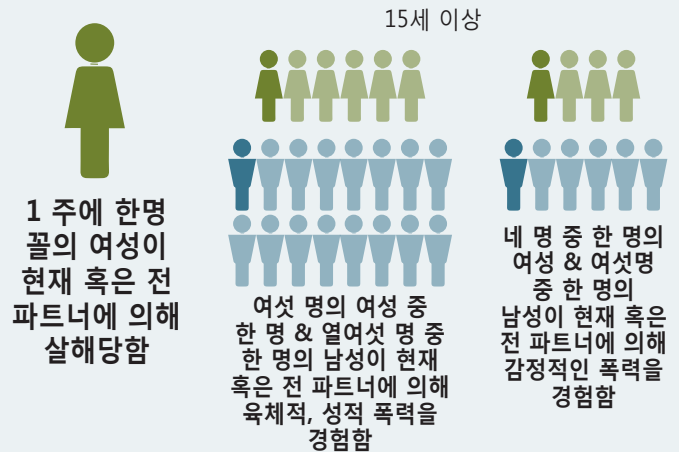
브로큰베이 가톨릭 교구의 사명은 우리가족의 가족으로서 하느님의 평화와 정의 그리고 화해를 포용하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인 교회를 파괴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대항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장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폭력에 대한 관용의 장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변명을 도우며, 가족구성원 각자의 불가분한 존엄성을 바라보는 사랑이야말로 희망의 장이 되고 하느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선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정폭력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더 교육을 받고 더 잘 대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도구(kit)를 통해 본당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복사하여 배포 할 수 있는 유인물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성당에 비치할 수 있는 진단지도 제공됩니다. 교인이나 방문객의 구명뱃줄이 될 수 있는 작은 명함이 제공되니 성당 뒷편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도 제공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bbcatholic.org.au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상' 이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유지하려 하며...수많은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의 존엄성이 짓밟히도록 그냥 두며 다른 곳을 보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1월19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칠레와 페루 방문시 (2018년 1월15-22일)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이나 중요한 관계 (예: 사실혼 관계) 에 있는 사람이 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다른 가족 성원이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통제를 사용하며 공포와 고통 그리고 종종 고립감을 초래합니다. 가정폭력은 또한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가져올 수 있고, 호주에서 매년 60-100 명의 여성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가까운 파트너의 폭력"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출처: ANROWS 2019.

출처: AIHW 2019

"폭력의 종류"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폭력은 잘 얘기하지 않는 숨은 범죄이며, 많은 문화에서는 금기시하는 주제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폭력의 종류는 육체적 그리고 성적 폭력만 있다고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폭력은 분명히 육체에 대한 폭력인 반면, 찾아내기 힘든 다른 종류의 가정 폭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압적인 통제 뿐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언어적 그리고 재정적인 학대가 그것입니다.

신체적인 폭력

뺨때리기, 때리기, 주먹으로 치기, 계단 밑으로 혹은 방 반대편으로 밀기, 목조르기, 화상입히기, 일반적인 음식이나 옷 그리고 주거환경을 주지 않기. 그리고 칼, 총기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적 폭력

이것은 강간, 원하지 않은 성적인 접근 혹은 괴롭힘, 협박, 음란물을 보도록 강요 당하기, 상대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두려움에 의한 성적 행위 그리고 매춘을 강요 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신적 그리고 감정적 폭력

협박, 폄하, 굴욕, 가족한테 폭력을 보이거나 행하기, 그리고 재정적, 사회적, 비 신체적 학대의 영향이 포함될 수 있다

강압적인 통제

이것은 피해자를 가족 그리고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고, 재산에 대한 접근을 조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정보나 도움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영적 혹은 종교적인 학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잠재적인 조정, 억압, 비밀유지, 침묵을 요구하며 순응하기를 압박하고 성전, 혹은 설교로 행동을 조정하는 것, 가해자에게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가해자가 성스러운 위치에 있다고 설득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Sources: AIHW, Family,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in Australia 2018; Oakley and Kinmond, Breaking the Silence on Spiritual Abuse, 2013.

가정폭력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교황님들의 가르침

교황 요한 23세와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평화의 회칙 (진실, 정의, 자선 그리고 자유 안에서의 보편적인 평화 설립에 대한 책, *Pacem in Terris* 1963) 과 여성의 존엄 (여성의 존엄성과 소명에 관한 책, *Mulieris Dignitatem* 1988) 이란 책에서 제각기 여성의 존엄성 지키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랑의 기쁨 (가족 안에서의 사랑에 대한 책, *Amoris Laetitia* 2016) 이란 책에서, 그리고 2017년 세계 평화의 날 메세지에서 폭력은 가정 안에서 주로 여성을 상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명명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목연수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폭력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독교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성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여성의 존엄성 #15 (*Mulieris Dignitatem* #15)

복음의 말씀과 행동, 즉 그리스도의 행동 방식은 여성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일관된 항의입니다.

교황 요한 23세, 지상의 평화 #41 (*Pacem in Terris* #41)

여성들은 그들의 타고난 존엄성에 대한 자각을 높혀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역할이나 자신을 하나의 도구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54 (*Amoris Laetitia* #54)

나는 특히 때때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수치스러운 학대, 즉 가정폭력과 남성힘을 과시하는 여러가지 양상의 노예상태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결혼생활에서 여성들이 견뎌내는 언어적, 육체적 그리고 성적 폭력은 부부 공동체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204 (*Amoris Laetitia* #204)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사건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응급 상황” 에서는 좋은 사목 훈련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방향의 근본적인 가치, 교회의 풍부한 영적 보물 그리고 신성한 회개를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보완해 줍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사랑의 기쁨 #229 (*Amoris Laetitia* #229)

성당, 운동(movement), 학교 그리고 기타 교회 기관들은 가족들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결혼상담, 부부간의 어려움과 바쁨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방문 사목, 그리고 중독, 불륜,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 사업,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문제가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나 가족을 위한 워크숍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7년 세계 평화의 날 - 비폭력: 평화를 위한 정치의 방식 #5

만약 폭력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면, 가정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비폭력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가족이란, 부부간, 부모와 자녀간, 형제자매간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에 대한 관대한 관심을 보이며, 마찰과 심지어 갈등이 무력이 아닌 대화, 존중, 상대의 이로운 대한 관심, 자비로움 그리고 용서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의 장입니다. 나는 핵무기의 무장 해제, 금지 그리고 폐기를 주장하며 이와 같은 긴급함으로 가정폭력과 여성과 아이들을 확대하는 것을 끝내기를 촉구합니다.

교회법

교회법은 유효한 결혼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교회법 1055 §1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교회법 1151

부부는 부부의 공생을 보전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법적 이유로 면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회법 1153 §1

부부 중 한편이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조성하거나 또는 달리 공동 생활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때는, 상대방에게 교구 직권자의 교령(재결)으로 또 지체하면 위험하면 그 자신의 권위로도 갈라설 합법적 원인을 주는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 개요서

폭력은 그리스도 정신과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복음에 상반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회적 교리는 우리들에게 폭력은 어떠한 문제에도 용납되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어떠한 인간에게도 가치가 없으며 “ 지키려는 것을 파괴하는 것” 입니다.

#488

폭력은 대인 관계 (창세기 4:1-16 참조)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창세기 11:1-9 참조) 관계에서 그 모습을 나타낸다. 평화와 폭력은 공존할 수 없으며, 폭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역대기 22:8-9 참조)

#496

폭력은 결코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교회의 사명으로 교회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폭력은 악이며, 어떠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폭력은 인간의 가치가 없는 행위다. 폭력은 거짓이며, 우리의 신앙의 진실과 인류애의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폭력은 교회가 보호하려는 존엄성, 삶,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는 우리에게 여자 남자는 모두 하나이며 같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라는 것은 어느 쪽도 상대방에 비해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으며, 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도 다른 상대방에게 권력을 갖지 않으며 그들을 군림할 근거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369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1931

인격 존중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



가정폭력을 끝내기 위한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끝내기 위해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와 안내를 청합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도하며 그 안에서 각자가 평등하며 존엄함으로 존중받길 기도합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안전함과 치유를 찾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모든 여성, 남성 그리고 어린이들이 폭력 없는 장소와 삶을 찾기를 기도하며,

아이들이 양육받고 보호받으며 지원받는 방식으로 보살핌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젊은 남성 여성들이 존중하는 관계의 롤모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상을 거부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져있는 폭력, 권력남용,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의 불평등을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의 원인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옳고 정의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함께 모든 종류의 폭력을 완전히 바꿔 극복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폭력이 없어지고, 여성과 남성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마음이 열려있고, 어린이들이 보호 받으며, 우리 세상의 일과 부가 평등하게 나뉘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dapted from Catholic Social Services Victoria Domestic Violence Parish Kit

가정폭력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



가해자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가끔 종교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학대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이나 개념이 오용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지속적인 폭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1 성경 - 가해자는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오용할 수 있습니다.
- 2 기독교 혼인 - 피해자에게 결혼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결혼생활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 3 기독교적인 용서 - 가해자는 바뀌는 것도 없이 자동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 일흔번씩 일곱번" (마태 18:22)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처럼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용서해야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자가 그들과 그들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봅시다.

성경은 가정폭력을 정당화 하지 않습니다

1.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며 성경을 오용하는 남성들은 간혹 고대 고레코로만의 '가정법(Household Codes)' 중 "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예: 골로새서 3장 18절, 에페소서 5장 22절, 또는 디모테서 2장 11절)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를 사용하여 폭력을 가하거나 권위를 앞세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2. 가정법(The Household Codes)은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이 한 가정의 우두머리였던 로마법을 따르던 고대고레코로만 시대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는 로마당국의 허락없이도 자신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살해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민법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예들에 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오늘날 민법에선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하며, 그것은 당신이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다른 가족 구성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3. 가정법을 포함하는 성경 문구의 저자인 성 바오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민법을 준수하며 가정에서 조화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 바오로는 율법의 요구 사항을 뛰어 넘어 힘을 가진자들이 힘을 남용하지 말고 대신 가정 구성원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고 돌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가족에선 어른이자 부모인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4.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똑같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성은 창세기 2장을 인용하여 남성이신 하느님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남성을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느님은 남성이거나 여성이 아니며, 인간성, 단일성 혹은 아담과 이브를 통한 '한 몸'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그들은 동등하며 서로의 양옆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더욱이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성경을 이용하여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고 하거나 여성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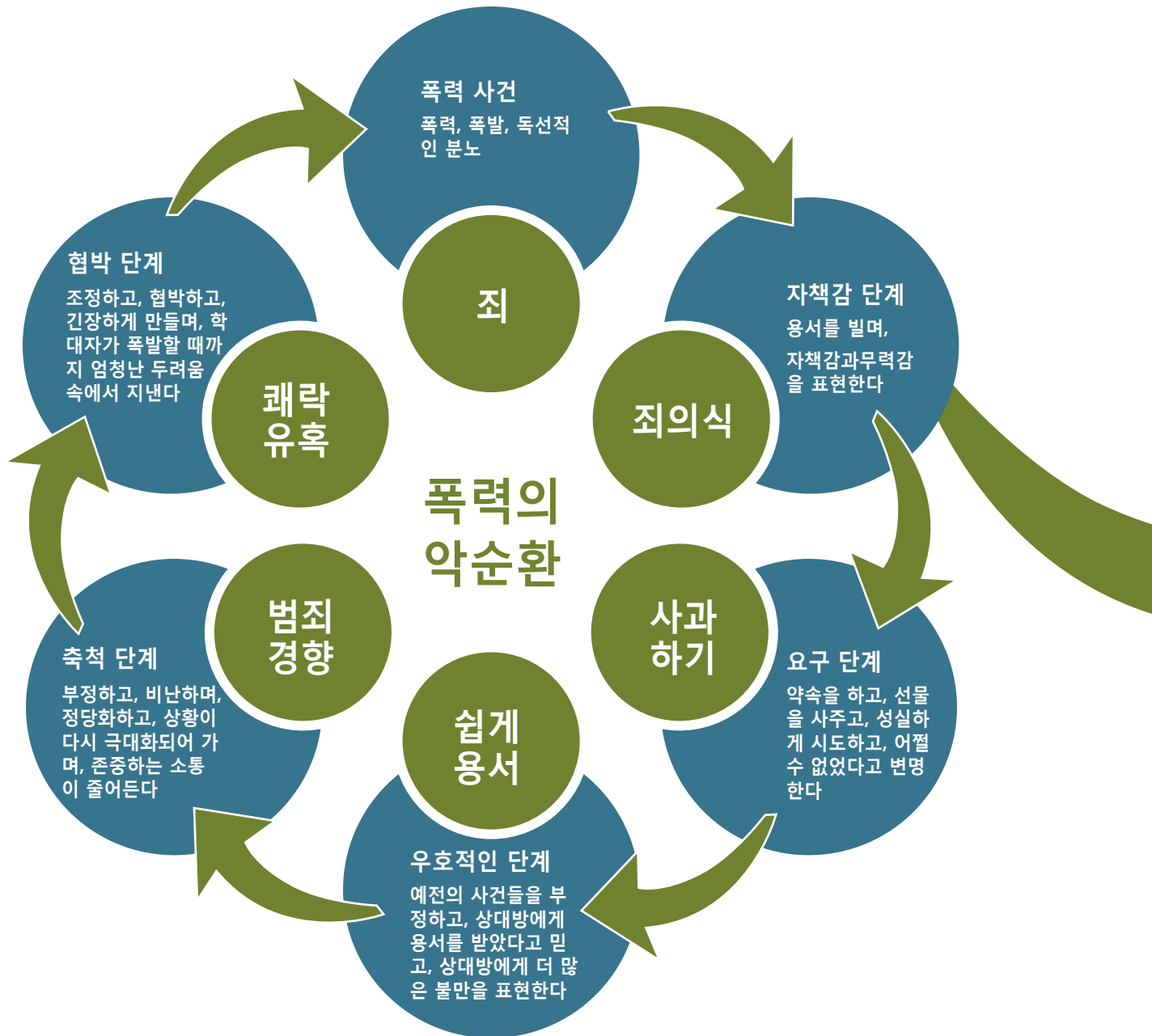
여성들은 결혼할 때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때 까지..." 라고 한 서약때문에 폭력적인 결혼생활에 머물러 있거나, 더 심한 경우 폭력적인 결혼생활에 머물러 있으라고 종종 조언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침대를 만들었으니 이제 반드시 그 위에 누워야 한다 (일단 선택했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견뎌야 한다는 뜻)" 라는 속담이 있지 않냐고 말하겠지만, 가정 폭력의 맥락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결혼은 하느님이 하느님의 백성과 맺은 영구적인 언약적 사랑을 반영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어느 한 사람이 학대와 폭력으로 얼룩진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생활 안에서의 학대와 폭력은 하느님의 언약적 사랑의 반영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신성하고, 생명을 주고, 배우자들과 그들의 자녀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아이들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경우 가톨릭 교회법은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떠날 법률상 이유가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래로 전화하십시오

1800 RESPECT
1800 737 732

통역을 원하시면 131 450 으로 전화하십시오 의사소통 장애가 있으신 분은 1800 666 677 로 전화하십시오





“폭력의 악순환과 잘못된 용서”

집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그것은 폭력의 악순환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후회를 표현하는 것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는 거짓맹세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는 이제부터 괜찮아질 것이고, 그들의 관계에 희망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는 이 우호적인 단계를 무너뜨립니다. 가해자는 이 때 또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 배우자를 비하하고 폄하합니다.

분노와 수치에 대한 그들 자신의 문제를 배우자에게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협박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너무 큰 두려움에 사는 나머지, 이 모든 단계 중 가장 무서운 폭력주기에서 사는 이 두려움을 멈추고 싶은 생각에 간혹 가해자의 폭력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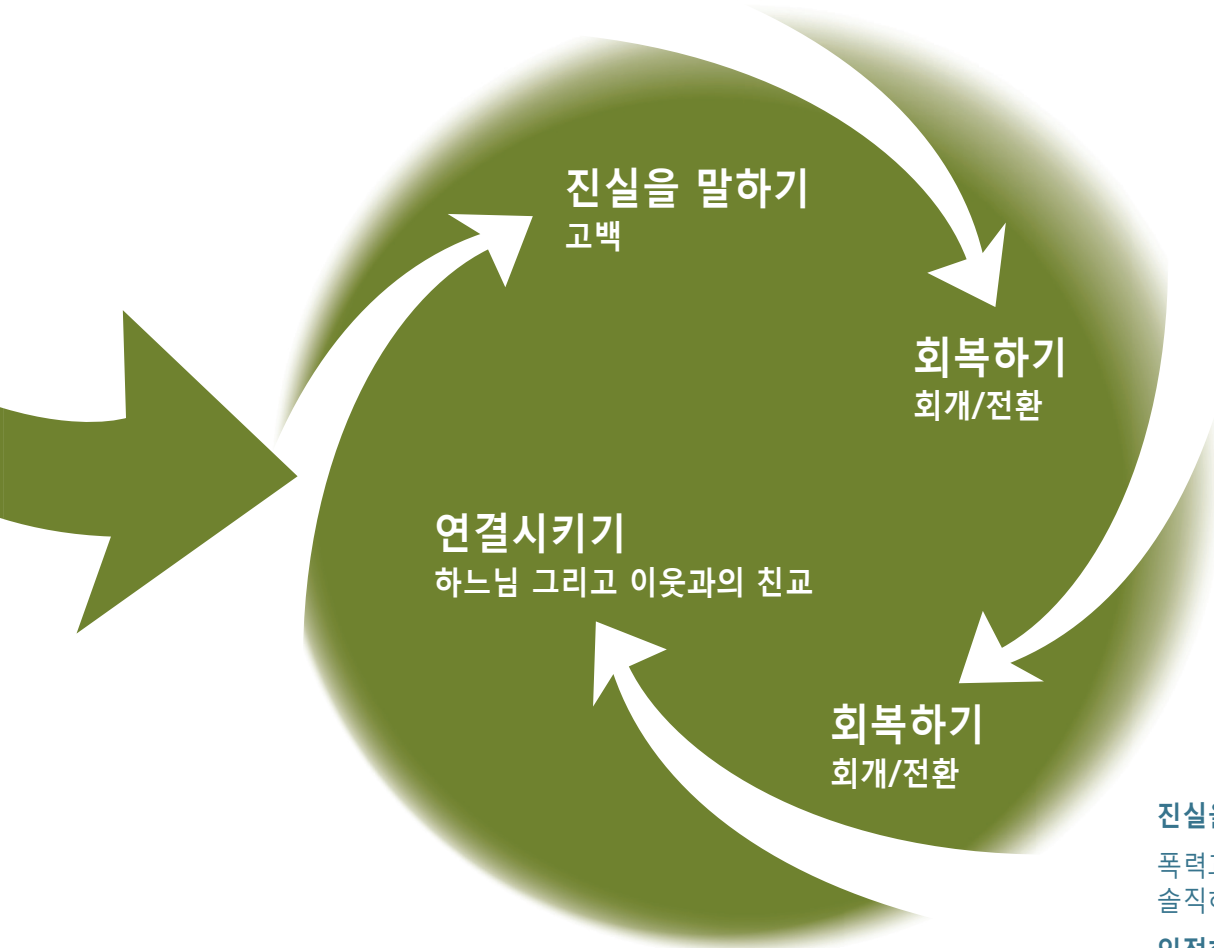
폭력의 순환은 위에 표시된 다이어그램의 바깥 쪽 원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 다이어그램의 내부 작은 원은 폭력의 순환 단계에 해당하는 죄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 작은 원은 가정폭력이 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찬 신앙이 인간이기에 죄를 짓는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폭력을 저지르고,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또 폭력을 반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인정하고, 보상하고, 서로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폭력의 순환을 영원히 깰 수 있습니다. (아래 진정한 화해의 순환 참조)

출처: Catholic Teaching,

Lenore E. Walker, "The Cycle of Violence" in *The Battered Woman*의 "폭력의 사이클" 중 (NY: Harper & Row, 1979, 2000)

폭력 의 순환에서 진정한 화해의 순환으로



“진정한 화해의 순환”

끔찍한 사건의 생존자들은 그들이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그 상처가 폭력으로 발전하지 않고 폭력의 순환을 깨는, 후세대에 걸쳐 되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화해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단계를 시작함으로써 가정폭력 순환을 깨기 위한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생존자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폭력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단순한 후회가 아닌 회개에 대한 진정한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슬픔은 보상과 회복의 약속으로 전환되게 합니다. 가해자는 부상당한 사람의 행복과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폭력의 대안을 찾고 하느님의 은총과 전문적인 도움에 의존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의 표현이 없으면 가정폭력은 계속 될 수 있고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폭력과 그 영향에 대해 솔직하기

인정하기

미안하다고 말하고, 한 사람과 그들의 관계, (아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다.

회복하기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느님과 전문가의 도움을 청한다.

연결시키기

더 나은 소통 방법을 찾고, 어려운 시기를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폭력에 대한 대안을 찾고, 당사자와 그들의 관계를 위해 하느님의 은총을 구한다.

가톨릭 공동체로서의 응답

가톨릭 공동체로서의 응답?

2017년 세계평화의 날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비폭력이라는 주제를 평화를 위한 정치방식으로 사용하여,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사용과 가정폭력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이 인간 마음 속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 내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비폭력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이 소통하고 서로를 관대하게 배려하는 것을 배우는 없어서는 안되는 호된 시련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마찰과 갈등은 힘으로가 아니라 대화, 존중,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 나는 가정 폭력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의 종식을 긴급하게 호소합니다.”

적극적인 제3자의 대응

- 무언가를 본다면 말하십시오.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되면 다음주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1800 RESPECT 또는 000 으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당신의 지역사회에 예를 들면,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음), 이민자 (그들의 언어로 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 장애인 (청각장애인 국가서비스 1800 RESPECT를 안내해 줄 수 있음), 원주민 여성, 임산부, 노인, 그리고 혼자 된 여성 (건강상태를 보살펴 줄 수 있음)과 같은 취약계층을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보호하고 돌보아 주십시오.

폭력,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엄중처벌원칙

- 가정폭력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고, 당신의 성당을 안전지대로 지정하십시오.
- 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 가정폭력에 대한 교회차원의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 폭력, 남성성, 여성성, 그리고 남여관계에 대한 태도에 대해 숙고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권장하십시오

가톨릭 공동체로서 우리는 가정 폭력에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 방관자가 되지 말고 폭력을 신고하십시오
- 2 폭력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가지며, 희생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마십시오
- 3 건강한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 4 개인의 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5 평화, 정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오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교육하십시오

다음 정보는 건강한 부부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만 부모와 자녀, 친한 친구 관계, 남자 친구 및 여자 친구 관계와 같은 긴밀한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커플은 5:1 의 비율로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규제받지 않거나 적대적인 성향의 커플은 긍정적인 습성의 비율이 훨씬 낮아집니다.

긍정적인 행동

- 유머
- 애착
- 서로에 대한 관심
- 기쁨

부정적인 행동

- 분노 표현
- 경멸 또는 혐오
- 징징거림
- 슬픔
- 두려움과 긴장

모든 커플은 관계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커플에게서 해로운 행동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해로운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비판 2) 방어 3) 경멸 4) 의사 방해/침잠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무방하며 매우 중요하다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폭력에 처한 사람이 혹시 화를 내거나, 언짢아 하거나, 말을 안하고 싶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준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종종 기쁨을 느끼고 덜 고립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가능하다면 가해자가 없을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안전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말하게 하고 불편한 이야기까지 말하도록 부추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두려움, 협박 그리고 위협은 사람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며,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부 피해자들은 당신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까지 학대 사실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바로 그들 곁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주의할 점: 당신의 의견을 말하기 보다는 당신이 발견한 점, 걱정이 되는 점을 말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문화적인 민감성과 이것이 폭력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염두해 두시오.

두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안전제일
2. 전문적인 도움요청



우선적으로:

당신이 직접 상담, 조사 또는 중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대응은 듣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에게 그 문제를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그 사람에게 CatholicCare 나 전문적인 기관에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연락처는 뒷면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른 실용적인 방법:

- 가정폭력을 당한다고 혹은 떠나지않고 있다고 피해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며 다만 그들이 어떤 행동의 결정을 내릴 때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 운전, 예약, 보모 또는 대피할 장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 전문적인 도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여러가지 방안을 탐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안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들이 어떤지, 당신이 할 일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추가적인 지원은 뒷면에 기재된 주요 전화번호와 "Resources" 유인물을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아니라, 오늘 신고하십시오

Key Telephone Numbers

주요전화번호

경찰: 000

즉각적인 도움을 위해선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1800 RESPECT: 1800 737 732

성폭행, 가정폭력에 관한 조언이나 지원을 위한 24시간 연중무휴 전국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움기관에 연결해 줍니다

비영어권자

통역사에게 131 450으로 전화하십시오. 1800 RESPECT 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가톨릭케어 브로큰베이 교구 (CATHOLIC CARE BROKEN BAY)

가톨릭케어(CATHOLIC CARE)는 가정폭력에 처한 여성과 아동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02 4356 2600

노던 비치(NORTHERN BEACHES): 02 8043 2600

나렘번(NAREMBURN): 02 8425 8700

와이타라(WAITARA): 02 9488 2400 (업무시간) 혹은 02 9488 2580 (오후 5시-10시)

남성을 위한 서비스 기관: 1300 766 491

24시간 연중무휴 전국 지원 서비스로 익명과 비밀보장을 해주며, 남성들이 스스로 폭력을 멈추고 행동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임시체류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여성

이민자들은 응급서비스나 법률지식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에 대해 특히 취약합니다.

만일 당신이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당신의 파트너 에게 접근금지 명령신청 (AVO - APPREHENDED VIOLENCE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민법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인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호 중 하나로 전화하십시오.

이민 조언과 권리 센터 (IMMIGRATION ADVICE AND RIGHTS CENTRE) - 02 8234 0799 (화-목, 오후 2시-4시)

이민여성 SPEAKOUT협회 (IMMIGRANT WOMEN'S SPEAKOUT ASSOCIATION) - 02 9635 8022 (업무시간)

NSW 법률지원 (LEGAL AID NSW) - 1300 888 529 (업무시간)

뉴사우스웨일즈 1900년의 범죄법에 의거하여 신체적, 성적 학대는 매우 심각한 기소 범죄입니다. 심각한 기소 범죄를 알고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될 때 신고하지 않는 것도 범죄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선 000에 전화하십시오.

이 교구자료는 브로큰베이 교구의 Catholic Life & Faith Formation Team 이 Safeguarding Office (chancery)와의 협의하에 개발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나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해 교회가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제작한 Parish Kit 의 일부입니다. 이 Kit 는 bbcatholic.org.au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www.bbcatholic.org.au



CATHOLIC
DIOCESE OF
BROKEN BAY